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1월 2일(금)

(음력 9월 25일)

Пятница

2 ноября 2018 г.

№ 43(11681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4일은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민행진에 참가하는 여러 민족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주정부, 3년간 주 예산안 심의

지난주에 주정부 확대회의에서 사할린주의 2019년과 2020-2021년간 주요 예산안과 기본 변수들을 심의했다.

앞으로의 3년간 주 예산의 주요 지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과세, 비과세 수익은 1306억 루블리에 달하고, 지출 예산액은 1719억 루블에 해당된다. 3년간 사할린주는 연방 예산에서 636억 루블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예정이다. 안나 하르첸코 주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사할린주 예산은 예전대로 사회적 방면에 지출할 계획이라며 주요 지원은 보건 분야, 사회복지정책, 교육 분야로서 2019년에는 전 지출예산의 절반 정도인 859억 루블리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고 이후 2년간 지출액은 57%가 증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간 사회복지정책에는 2018년 보다 45억 루블리가 증가된 매해 262억 루블리 지출을 책정했다. 자금은 사할린 및 쿠릴의 18만 명의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200개 이상의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출예산 계획의 항목에는 건축 분야, 사회복지시설의 일련의 수리, 문화 및 스포츠 분야, 사회적 분야에 대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내 학교 건축과 개건에 110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지출예산의 주요 부분은 2019년부터 공공주택경영에 273억 루블리(총 예산의 15.9%)가 책정되었다. 주 정부의 대표의 예산의 주요 과제는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발전과제와 전략적 목표에 대한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있다고 표명했다.

웨라 웨르비나 주정부 수상은 "예산안은 우선 주두마 위원회들과 실무회의에서 심의한 다음 정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주예산의 최종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을 해야 한다. 작성된 주요 재무서류는 12월에 승인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3년간 주예산 심의안은 11월에 주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와 홋카이도 간 새로이 5년간 협력협정서 체결 계획

지난주에 사할린주와 홋카이도 간 우호 및 경제협력 협정체결 20주년 기념을 맞이해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 주 정부 부수상은 일본 홋카이도 방문하게 되었다. 벨리크 부수상은 홋카이도 타카하시 하루미 도지사를 만나 사할린과 홋카이도 간 새로이 5년에 걸친 경제, 건설, 현대 도시환경, 농산업 분야와 문화·관광 교류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타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에 따르면 새로이 5년에 걸친 협력관계는 사할린-홋카이도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상호관계를 확대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부수상은 현재 일본은 사할린 지역의 주요 투자자이고 중요한 최신 기술의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작년에 일본과의 교역량은 거의 1.5배 증가되었고 교역액은 42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사할린주에는 일본의 투자를 받는 53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도로건설과 창문제작 업체들은 잘 알려져 있다. 사할린의 농작물 생산기술에도 일본의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관광 분야에서는 사할린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40% 이상이 일본 관광객이다.

이날 40여년간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할린과 홋카이도의 대다수 도시들 간 자매결연에 따른 13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언급되었다.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우호관계와 문화 교류의 강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렉세이 벨리크 부수상이 강조했다.

10월 20일에 홋카이도에서는 러·일문화축제가 펼쳐졌고 10월과 11월 사이에 사할린에서는 축제의 일환으로 여러 문화행사(재즈축제, 사할린-일본 클래식 연주자의 협연 등)가 조성될 전망이다.

단신

국민 단결의 날, 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기념

11월 4일은 러시아에서 국민의 단결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사할린주 내에서도 많은 행사가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전통적인 시민행진이 진행된다. 오전 11시 위스크레센스키 성당 앞에 모인 시민들은 카잔 성모 이콘을 들고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까지 이동한다. 11시 30분 이곳에서 <위대한 러시아 - 단결에 담긴 그 힘>이란 명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포베다(승리)>역사기념관에서는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도전게임(11시 시작)을 준비한다고 전해졌다. 또한 대규모 행사 중 하나는 <예술의 밤> 행사다. 이 행사는 주내 여러 도시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사할린,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게임 시설 준비 완료

주중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사할린에서 제1회 <아시아 아이들>동계스포츠대회 진행을 위한 제반시설이 준비되었다고 밝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 국제대회의 위원회 위원장 드미트리 글루쉬코,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프 부수상, 바이애슬론 올림픽 2관왕 챔피언인 안나 보갈리 <아시아 아이들>의 홍보대사가 참여했다.

<아시아 아이들>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며 선수들은 8개 종목(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스키 점프, 휘겨,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쇼트 트랙)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경기 참가를 위해 세계 17개국이 신청 등록했다.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곳의 스포츠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아시아 아이들>개막 100일을 앞두고 11월 2일에는 <크리스탈>스포츠회관에서 기념행사들이 펼쳐진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30(화)-31(수)일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양장식 관장을 비롯해 코트라 대표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방문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 동포 사업가들과 만나 사할린-한국 간 사업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협조를 받아 이날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20여 명의 동포 비즈니스맨들이 모인 가운데 코트라의 활동과 사업 설명, 사할린 측에서의 투자 또는 협력 요청 등을 내용으로 담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코트라는 85개국 12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대표들에 따르면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코트라는 식료품, 생활용품을 운영하는 5-10개 업체들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해 이곳 유통회사와 1:1 비즈니스 미팅을 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에너지가 넘치는 주명수 화백의 고희(70세) 기념 전시회

주명수

1948년 12월에 사할린주 코르사코브시에서 태어났음. 사할린 동포 2세.
어렸을 때부터의 취미는 음악, 축구 등.
22세에 처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
1972-76년 - 이르쿠츠크예술전문학교에서 공부.
예술전문학교 졸업 후 케메로워 미술공예 작업실에서 활동.
1981년 - 사할린으로 귀환.
1985-87년 - 여러 창작그룹에서 활동.
1989년 - 소련화가연맹 가입.
2014년—러시아 공훈 화가 칭호 받음.
그의 작품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평양), 미국(뉴욕), 한국(경기도), 모스크바, 마이코프 등지에서 전시됐음.
또한 일본, 한국, 미국, 아이슬랜드, 러시아 등지에 개인적 컬렉션에 소장.



(이에식 기자 촬영)

지난 10월 26일(금)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 화가 연맹원인 주명수 화백의<변화의 시간> 전시회가 열렸다.

홍보자료를 보고 전시회를 찾은 필자는 사실 많이 놀랐다. 전시회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이었기 때문이다. 전시 중심에 자리를 잡은 영주귀국자들의 초상화들이 먼저 눈길을 끌었다. <섬을 떠나면서>란 시리즈가 감동적이었다.

주명수 화백은 10년 이상 영주귀국 어르신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사진으로 담고는 1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붓으로 일련의 그림들 그려냈다. 고향, 가족과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사할린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할머니·할아버지들의 모습들, 얼굴의 많은 주름살, 주 화가는 조상들의 초상화를 한 색상의 범주로 풀어내어 표현했다. 이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그림은 <아픔>이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고 그린 작품이라고 한다. 소녀상, 위안부, 전쟁 패자인 일본 군인 등, 모두가 아픔을 전달하고 있다.

주명수 화가는 <섬(사할린)을 떠나면서>시리즈의 작품 모두를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며 사실은 관객들이 아직 보지 못한 작품이 더 많다고 했다.

최근 1년간 300여 작품을 그려왔다고 했다. 12월에 철수를 앞둔 주 화가는 창의력이 대단하고 몹시 에너지가 넘치는 미술가임을 필자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주명수 화가의 이번 개인전의 주제 시리즈 중 <원주민의 주거> 등 사할린 원주민 북방소수 민족인 넙흐와 아이누족에 관한 작품도 있다.

작년에 체호브콩쿠르에서 대

상을 받은 주명수 화가는 타간로 그, 마이코프 등을 비롯해 체호브가 지낸 곳을 관광하게 되어 이후 마이코프에서는 작품 28점을 전시할 기회도 가졌다고 한다. 그중 그림 8점은 체호브와 관련돼 있고 나머지 20점은 넙흐에 대한 시리즈였다. 전문가들은 넙흐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원주민을 소재로한 그림작업을 계속 하길 바랐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유명 넙흐작가인 블라지미르 산기를 찾아 그분과 함께 노글리키 근처 산기 조상들의 주거지를 다녀왔는데 사실 꿈의 흔적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기 작가가 들려준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시리즈로 그림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주 작가는 "저는 민족의 정신을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감을 느끼면 쉽게, 가볍게 그려요. 붓이, 연필이 가는 대로 그림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번 전시회에 원주민들의 초상화도 많이 출품되었다. 원주민을 주제로 한 그림 20점 정도가 전시되었다. 주 작가는 이 작품을 전시에 내놓기 전에 블라지미르 산기 작가에게 먼저 보내어 선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나는 넙흐인 그림을 정말 많이 봤는데 주명수 화가가 누구보다 넙흐사람을 정말 비슷하게 그렸다. 진심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산기 작가의 확신에 찬 표현이 주 화가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80여점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하분의 꽃들>, <형상의 탄생> 등 시리즈도 주명수 작가의 다양한 표현기법에서 그림의 대가임을 여실히 느끼게 했다.

수채화, 유화, 선화 등 장인은 이번 금요일 주미술박물관에서 펼쳐질 <예술의 밤>행사 일환으로 <먹으로 그리는 것>이란 활동교실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 작가는 뿌리를 잊지 않는 화백이다. 그가 만든 작품 중에

는 아버지, 가족, 옛 조상들에 대한 소중한 작품도 있고 사할린 한인 역사가 담긴 그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은 9년 전 사할린미술관에서 펼쳐진 그의 개인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사실 문화예술에 관심 가진 한국분들도 자주 주 화백의 작업실을 찾는다. 그의 희망은 한국에서 한 번 개인전을 여는 것이었다. 올해 그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개인전은 아니지만 이번에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미술관에서 <코리아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특별전에 초대되어 작품 5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성용 사할린 화가와 함께 이 행사에 다녀온 주명수 화백은 "아주 만족했다."고 고백했다. 아주 큰 전시장이었고 자신의 큰 작품을 크고 좋은 공간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도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망향의 언덕) 하나를 선 사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음 달이면 고희(만70세)를 맞이하는 주명수 화백에게는 삶을 향해 멈추지 않는 좋은 모터가 있어 끊임없이 그를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 같다. 노력과 창의력을 다 갖추고 뿌리도 잊지 않으며, 역사와 전설에 관심이 많고 생각이 깊은 화가는 여러 기획을 생각하고 있다.

그의 화보집도 곧 출판된다. 개인전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26일 전시 개막일에는 주명수 화가의 동료 화가들과 가족과 친척, 어릴 적 친구들, 그동안 우정을 맺은 많은 분들, 동포화가의 미술을 좋아하는 팬들, 동포문화예술계 대표, 언론인들, 주한인여성회·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동포사회계 관계자 등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진행된 개막식에서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인사에 답례로 주 화가는 팬들에게 노래 한 곡을 멋지게 불러주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예술의 밤>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초대

주 일반과학도서관이 <예술의 밤>전국 연례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4일 18:00시- 23:00까지 여는 문화 프로그램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올해는 <예술이 연합한다!>라는 표어 아래 행사가 진행된다. 퀴즈대회, 활동교실, 강연, 다큐 영상 관람, 주제별 행사장, 국민단결의 날을 맞아 주 도서관이 사할린주 국민총회와 공동으로 5번째 진행하는 정기 축제 콘서트가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예술의 밤>행사에서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지식 겨루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어볼 수도 있다. 시각예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극마당이 펼쳐진다. <다양한 얼굴>극단의 젊은 배우들은 아이셰 리센코와의 단편소설을 토대로 각색된 희곡 <내 친구>를 관객들에게 선보여 평가를 받는다.

전국 행사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도서관 전시회를 방문하는 주내 주민과 방문객들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각층에서 소개하는 예술적 문학을 알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진정한 열람은 유일하게 출입제한된 도서관실 방문의 기회가 주어져 희귀본과 귀중한 출판물들을 볼 수 있는 <예술적 지하철>견학에 있다.

<예술의 밤> 행사는 색소폰 음악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관람객들은 라이브 노래와 명쾌한 색소폰 연주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주 문화부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Ночь искусств"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а 4 ноября

с 18.00 до 23.00 посетить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искусств".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под девизом: "Искусство объединяет!".

Посетителей ждут викторины, мастер - классы, лекции, просмотры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кинофильмов, тематические площадки и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ко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который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одит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ятый раз.

В рамках "Ночи искусств"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 турнире. Для почитателей визу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вои двери распахнёт театр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Молодые актёры театральной студии "Разные лица" представят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пьесу "Друг мой" по мотивам рассказов Айше Лисенковой.

В ходе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уроченной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литературой по искусству из фондов СахОУНБ, посетив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всех этажах библиотеки. Настоящим открытием для гостей станет экскурсия "МЕТРО ИСКУССТВЕННОЕ", участникам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ся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закрытое хранилище книг, увидеть редкие и ценные издания.

Завершающий аккорд акции "Ночь искусств" — концерт саксофонной музыки. Гост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живым вокалом и яркой игрой,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세무 전문가들, 세미나 및 회의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초대

러시아 연방 국세청 제1호 지역 감독사무소는 세미나 및 회의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초대한다. 세미나에서 다룰 과제는 고객들에게 개인적, 가정적 업무와 별도의 요구를 위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으로서 등록하는 절차, 세무보고서 제출과 납세에 관한 것이다.

행사는 11월 6일 레닌 거리 173번지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4층(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개최시간은 14:00시라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Налоговики приглашаю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на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Межрайонная инспекция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России №1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на семинар-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порядка постановки на учет граждан, оказывающих услуги физическим лицам для личных, домашних и иных подобных нужд,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тчетности и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6 ноябр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Ленина, 173, четвертый этаж (актовый зал). Начало в 14:00, сообщает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мэрии.

사할린 동물보호소 한 곳에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보조기구 탄생

<착한 마음>장애동물센터는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용 휠체어를 공급받았다. 이 특별보조기는 인간의 장애 친구들이 부차적인 도움없이 거동하도록 하는 구조물이다. 이에 관심을 가진 사할린 주민들이 10개의 특별보조기를 확보할 자금을 모았다. 보조기 하나의 가격은 8천 루블리로 주문 제작은 모스크바주에서 이뤄진다. 현재 <착한 마음>센터의 드미트리 쿠즈네초브 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의 과제는 꼬리를 가진 동물이 스스로 앞발로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아직 이 동물들은 겁을 내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뒷발이 닿지 않도록 특별보조기에 튼튼한 직물로 만든 양말을 접합시켰다. 쿠즈네초브에 따르면 현재 센터에는 이와 같은 특별보조기가 3개 더 필요하다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돕는다면 장애동물센터에 척추장애를 가진 동물 모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7면에 계속)

2달간 사할린 파견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 완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해외 파견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사업 위탁을 받고 경희대학교 지휘 아래 한국학생들이 두 달간 사할린에서 한글교육을 펼쳤다. 9월 1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예비교원 7명과 경력교원 2명이 다녀갔고, 9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차로 다녀간 팀은 예비교원 5명으로 경희대학교 박정은 경력교사의 지도로 사할린에서 교육활동을 해왔다.

박정은 경력교사에 따르면 2차로 온 예비교원들은 1차 예비교원들이 하던 것을 이어갔다. 이들은 주말마다 한인회들이 운영하는 지방한글학교(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돌린스크, 홈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등)를 찾아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할린국립대에서는 모의수업을 계속하고 또 러시아 문화체험 수업도 가졌다.

이번에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위라),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회장 코르네예와 인나)와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어 교사연수에 예비교원들도 적극 참여해 여러 문화체험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예비교원들은 사할린주한인회가 주최하는 <장인들의 도시>



문화체험축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예비교원들은 9월에 시작한 한국어 정규수업을 2반에서 화요일·목요일에 계속하였다. 지난 23일(화) 예비교원들은 교육원 40여명의 수강생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수료증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할린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며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 수강생들은 내년에도 계속 원어민 교원들의 수업을 기대하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강경화, '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철회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

대법 징용판결 나흘 앞두고 외교부 국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3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부가 2년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철회 문제가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철회 요구에 "지금으로서는 전임 정부 외교부가 낸 정부의 의견서를 철회한다거나 의견서를 새로 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의견서의 '당사자'로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여당 의원들의 의견서 관련 질타와 추궁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취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특히 이 시기는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타결

해 논란이 커졌던 때다.

당시 의견서는 "(국제 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1부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을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국 청구권협정의 대상 밖이라는 지적과 함께, 근대법의 원리로 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조약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런 터에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견서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간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맞물려 논란을 일으켰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관련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기 위한 민원을 외교부에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외교부 의견서를 만들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이 취임 전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고문으로 몸담으며 소송에 관여했고, 외교부의 2016년 의견서는 그 당시 김앤장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10일 외교부 1차 국감때 윤병세 전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의 원칙에 위반되는 비양심적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 정부가 2016년 의견서 철회를 간단하게 선언하지 못하는 배경은 우리 정부가 취해온 기존 입장이 있는데다, 철회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전호의 계속)
2.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의 희망사항

(1) 사할린 한인들의 희망사항

이미 앞서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특히 1세대에 있어서는 영주귀국자의 날짜 제한-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이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들이 70여년이 넘도록 그려온 고국을 날짜 제한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와서는 국력 수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그 자녀들은 동시 입국이 되지 못하고 장애인 자녀 한 사람만 데리고 오도록 하는 정책은 이제는 수정을 하여 한국 정부는 국력에 어울리는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 즉 일본의 지원이 2015년말 부터 끊기자, 한국 정부에서는 한 해에 20명 정도를 영주귀국시킨다고 한다. 만약 그 1세대 중에 아직도 영주귀국 대상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1차적으로 본인의 희망하에 귀국을 시키고, 그 후손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한 한국으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타국에서 귀국시키지 않는 그러한 정책은 접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며칠 전 추석 명절이 지나갔지만,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분들은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보고 싶어도 비행기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 마음대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자식들과의 생이별을 하니 귀국이란 기쁨과 교환하여야 하는 고통이 그들을 더욱 외롭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이 서로 자주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비행기 비용 문제도 제도로서 할인해주는 복지제도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대한적십자사가 영주귀국자의 역방문을 지원하는 비행기 비용을 후원한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나, 일회용이 아닌 제도로서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이중 이산가족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영주귀국자의 희망사항
영주귀국자의 희망사항도 위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다. 첫째, 그들의 후손들이 귀국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들이 거주하던 주택을 그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둘째, 영주귀국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파트 임대와 1명당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이 너무 적으니 이를 좀 더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책무만으로도 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만 제공하더라도 그 이외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적어도 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주민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흔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그곳이 발전되면 집세 인상 등으로 그곳 원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주택전도 현상을 말한다.

현재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가는 단체들(NGO)이 사할린 한인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그들이 사할린 한인들과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들을 받게된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문제로 인하여 누가 지원대상이 되느냐하는 문제로 사할린에 살던 원래의 한인과 그들을 후원한다는 단체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곳 원주민인'사할린주한인회(1990년 창립)'(전자)와 한국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국민 친목단체인'사할린한국한인회(2013년 창립)'(후자)가 있는 모양인데, 한국 정부가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어느 단체를 지원하여야 되느냐, 즉 누가 사할린 한인의 지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후자 측에서 전자 측에 당신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니 '사할린주고려인동포회'로 이름을 고치라고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충돌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필자가 보면서 즉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원주민과 나중에 유입된 주민과의 갈등처럼 이러한 명칭 문제도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비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래의 사할린 한인들이 자신들의 명칭으로 사용해오던 '사할린주한인협회'라는 명칭은 그들의 고유한 명칭으로 남겨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할린한국한인협회'의 명칭은 '사할린한인협회'로도 불려오다가 최근에는 '사할린한인협회'로 확정하였다 한다.

원래 누군가를 위한 사업은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옛말도 있는데, 그들의 주변에서 조용하게 후원하는 것은 모르나, 그들의 고유한 명칭마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이 될 것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художник Дю Мен Су универсален как человек Возрождения и плодотворен поболее, чем целый Союз художников. Когда сталкиваешься с таким феноменальным масштабом личности, всегда думаешь: как у него на вс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Человек разносторонний, Дю Мен Су отдается избранному интересу с душевным пылом, который не остужают годы. С годами только приходит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илах, понимание — "я могу". Живопись и графика, фотография,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 сплавленная с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а также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фикой, музыка и футбол, путешествия, обращение к истории своего рода и народа...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художник принимал приветия от друзей из Корсакова и Иркутска, слушал стихи, мгновенно родившиеся в его честь у поэта Чан Тэхю, и сам пел. В экспозиции властвуют цветы и горы (серии "Цветы", "Время перемен"), люди и судьбы (серии "Покидая остров", "Айны", "В краю Миф нивхов", "Стойбище", "Рождение образа", "Ноглики").

— Мы открываем выставку человека ищущего, не боящегося экспериментов, который всей своей жизнью, великим трудом доказал преданность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Александр Бурьяк.

На вернисаже зал был полон почитателей художника, но впечатление многолюдности удваивалось, потому что со стен смотрели портреты.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на этой выставке картин сюжет присутствует один —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а. Ни одна из предыдущих выставок Дю Мен Су не давала столь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ного воплощения протагоровской максимы: человек — мера всех вещей. Для художника, не мыслящего себя в отрыве от корней, эта тема остается безбрежной.

В серии "Покидая остров" художник вновь высказывается о драме раздел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на закате жизни получивших шанс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и родней. Удивитель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мощи и информативности получились портреты цикла, словно плывущие в облаках. Вы "читаете" по этим лицам, списанным с реаль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х непростую жизнь. Эта долгая, полная трудов, лишений и надежд жизнь виртуозной кистью художника "прописана" в сетке морщин, покрывающих по-крестьянски обожжен-

«Время перемен» художника Дю Мен Су

ные солнцем и все равно прекрасные лица, в естественной седине (нынешне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ыглядит иначе), в выражении усталой умудренности. Вглядываясь в реку жизни, зрители словно перелистывают фотоальбом большой корейской династии, исполненный в бледно-голубовато-коричневой гамме, в которой сошлись небо и земля, жизнь и мечты...

Портретные галереи корейцев сходятся в центральной точке — полотне "Боль", взрывающем эту спокойную тональность яркой экспрессией.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в его создании стало воспоминание о времени японского владычества в Корее, воплощение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памятник в Пусане корейским женщинам, девушкам, девочкам — 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насилия. В од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зломанном, насыщенном кричащим цветом, собраны угловатые фигуры жертв и их мучителей —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уже плененных: "Я стремился показать, что в войне нет победителей, страдают все, 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женщины".

Графические иллюстрации его авторства украсили сборник "Узоры судьбы", выпущен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имени Олега Кузнецова. В нем собраны произведения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ым рисунки Дю Мен Су дали еще большую смысловую глубину,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библиотеки Ольга Бородина. Она вручила художнику аудиоверсию сборника, которую записали народные артисты России Клара Кисенкова и Владимир Абашев.

В сер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первосахалинцам — айнам и нивхам, мастер использует иную манеру граф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Лица "лесных людей" словно выступают из густой чащи миллионов штрихов, брошенных на лист одним движением без помарок. Жизнь стойбища, выдержанная в черно-серых тонах, обретает гипнотический флер. С земли в область мифов и легенд уходят лучник, охотник, к которому льнут собаки, шаман с бубном, танцующие девушки, ловец оленя, старуха в наголовной повязке, и косяки рыб сплетаются в нарядный нивхский орнамент... В этих листах воплотились беседы художника с патриархом сахалинских нивхов Владимиром Санги,



его собственные мысли об истоках цивилизаций. И можно вообразить: по ночам, в кромешной темноте и тиши, перекидываются незримые мостки между временами и делятся диалоги. О чем-то говорят друг с другом айны, нивхи, корейцы, без которых история и палитра Сахалина утратила бы свой колорит...

Многие художники по случаю юбилея замахиваются на ретроспективу — имеют право. Музеи, обращаясь к запасникам, помогают отследить срез творчества автора, начиная с "первого слова" в искусстве. У художника Дю Мен Су, который являет собой небольш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с годами лишь набирающую обороты, нет нужды оглядываться на

прошлое.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он написал более 300 работ, из которых на выставку отобрано 80. О себе Дю Мен Су говорит: "Я увлекающийся человек, но пока я влюблен в остров и живущих на нем людей", маленькой частицей "пока" оставляя за собой право открыть дверь в новую другую вселенную. Он сам по себе — постоянная новость, потому и очередную встречу со зрителем назвал однозначно — "Время перемен". Это не только отраж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мироощущения сегодня, но и доброе приглашение сахалинцам не стоять на месте в поисках призвания и смысла жизни.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Фото: ЛЕ СИ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в Таганроге дюжину медалей

В Таганроге состоялись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WTF) "Кубок Приазовья". Их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свыше 5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16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вельск,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убок Приазовья"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на него стремится попас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бширная география спортсменов, — пояснил заслуженный тренер России Роман Кувиков. — Соревн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рейтинговыми. По их итогам в том числе проводится отбор в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а этих состязаниях завоевали 12 медалей. В турнире юниор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Егор Федоров (весовая категория до 48 кг) и Роман Ильин (до 55 кг). У юношей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до 34 кг), а Александр Цой — серебряную (до 48 кг). Все спортсмены —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юниоров в своих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заняли холмчанин Михаил Идиатулин, Владимир Мажара и Ангелина Пашенкова из Невельска, а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Евгений Мамаев,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Альберт Чан, Инга Майкова и Анатолий Солдатенко.

Подготов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тренеры Владимир Тулупов, Надежда Сон, Денис Ким, Ри Ин Сон.

(Пресс-службу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ерегов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и США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огут пройти на второй неделе ноября

Перегов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и США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огут пройти на второй неделе ноября, то есть сразу после промежуточных выборов в Конгресс.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ереговоры планировались на конец октября, 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л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но стороны достиг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новому сроку. Судя по всему,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9 ноября.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выбран Нью-Йорк или Вашингтон.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проведение второг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меры Пхеньяна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ответные действия Вашингтона.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вынес решение по делу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труде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бязал металлургическую компанию Nippon Steel Corporation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четырём гражданам РК, работавшим на её заводах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оккупаци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вынесено 30 октября по итогам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ска четырёх южнокорейцев, требовавших компенсацию от вышеуказанной компании. Что касается спорного момента о праве истцов требовать компенсацию, то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частные обращени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оправданы, поскольку они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базовый договор об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заключённый в 1965 году. Суд также не принял утверждение Nippon Steel Corporation о том, что частные претензии пострадавших утратили актуальность. В итоге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должна выплатить истцам по 100 млн вон или 87 тыс. доллар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Япония предпримет ответные меры, обратившись с данным вопросом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уд, что усугуби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двух стран.

Пхенья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опубликован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бюллетене

29 октябр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бюллетене опубликована Пхенья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Данная публикация является последней процедурой перед вступлением документа в силу. Она подготовлена от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Ли Нак Ёна и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о Мён Гюна. Принятие декларации не усилит финансовую нагрузку на население, а также принцип реализации описанных в документ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бюджета, одобре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будет также опубликовано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но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26 ок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во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 генеральском уровне стороны сообщили 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цедур ратификации в парламентах двух стран.

Сеул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оводим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этом году Сеул привлёк 40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4 октября в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12 из них - круп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по клинической онкологии,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на 2020 год, круп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популярного спорта (IVV) в 2021 году и други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во всех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35 тыс. человек. В период с 2015 по 2017 год Сеул занимал третье место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инимаем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ингапур, на втором Брюссель.

К 2021 году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во всех школах Сеула

С 2021 года во всех школах Сеула ученик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бесплатное экологичное пита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9 октябр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эрии Сеула. К общему списку добавили школы старшей ступен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нная мера коснётся всех учреждений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частных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бесплатное питание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в 96 школах старшей ступени в дев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х. В 2021 году объектами программы станут 930 тыс. учеников 1.302 сеульских школ всех ступеней. Бюджет про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615,7 млн долларов. 50% этой суммы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30% - мэрией Сеула, 20% - мест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Программа бесплатного питан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в 2011 году.

(RKI)

Как изменилась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ая зона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Ещ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выраж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ая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ая зона" воспринималось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оксюморон, противоречие в понятиях. На словах - "ДМЗ", а на деле там все наштапиговано оружием и военными. Формально она создан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а в реальности - это одно из самых опас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де перестрелки, стычки и даже жертвы случались регулярно. Та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сделали ряд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ов, которые вернули ДМЗ ее изначальный смысл.

Наверное своего рода иронией судьбы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 авангарде этого мирного сближения стоят военные двух стран. Армия всегда славится консерватизмом и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ью по части разных мирных инициатив с недавним врагом.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можно понять: дипломаты могу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о чем угодно, но если противник вновь ударит в спину, то первыми погибнут именн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 потому определенный консерватизм в мышлении генералов неизбежен. Не исключением являются "люди в форме" Юга и Севера. Тем не менее,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они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тречались в районе ДМЗ, проводили переговоры,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и работали вместе, чтобы вернуть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мир. Судя по нынешним результатам, они смогли многого достичь.

В четверг 25 октября стороны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ли выполнение мер по полной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уже казалось бы "давно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совмест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нглийская аббревиатура - JSA или Joint Security Area) в районе Пханмунчжона. Там ликвидированы девять блокпостов - пять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и четыре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А уже к концу ноября будут убраны все 22 блокпоста с обеих сторон всей ДМЗ,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ют роль передовых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обороны на случай войны, а такж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также в JSA, которая была ещ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аштапигована минами, закончился процесс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В свое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Билл Клинтон назвал этот район "самым ужасным местом на земле", а теперь JSA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символ мира и сближения двух частей Коре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Юг и Север также демонтируют ча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наблюдению друг за другом, а также прекратят ряд военной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а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границе.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ах, прилегающих к границе.

Отныне в районе Пханмунчжона, который был и является, пожалуй, самым известным пунктом на ДМЗ, где постоянно проходят переговоры Юга и Севера, вы не увидите вооруженных военных. Безопасность там обеспечивают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о 35 человек - по пять офицеров и 30 солдат, но все они без оружия, напоминая "дружинников", следящих за порядком.

Если раньше друг против друга стояли в напряженных позах солдаты Юга и Севера, то 26 октября генералы двух стран с улыбками, шутками и смехом пожали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подписав очередной пакет мер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Отныне ни под каким предлогом не допускаются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а ДМЗ.

"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печатлен теми мерами, на которые мы пошли по разоружению в районе JSA... Еще вчера мы стояли друг напротив друга, на острие возмож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целились друг в друга. Теперь же мы в авангарде тех усилий по части мира, о которых договорились наши страны и наши лидеры", - зая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генерал-майор Ким До Гюн своему коллеге, генералу ВС КНДР Ан Ик Сану. Северянин поддержал его, тоже вспомнив, как солдаты Юга и Севера дежурили здесь, в Пханмунчжоне, находясь в постоянной боеготовности, тогда как теперь начинается новая эпох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оздан и совместный военный комитет,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ледить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этих и прочих аналогич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Конечно, ранее уже бывало не раз, когда Юг и Север много говорили о мире, чтобы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чать вновь угрожать друг другу оружием, а на гра-

ницу возвращалас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и даже порой звуки пулеметных очередей. Но теперь все иначе - оружие уходит, а в некоторых ключевых районах ДМЗ (той же JSA) уже ушло, сделав невозможной стрельбу.

На это сближени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 подозрением смотрят США и ряд других стран.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хватает консерваторов,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ют "не верить коммунякам", но лидеры двух Корей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охоже, настроены серьезно снизить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ни смогли заставить своих военных стать главными исполнителями этого "мирного наступления".

Своего рода символом перемен к миру и, безусловно, знаков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сталот 28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9 часов утра Объединенная зо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куда раньше могли попасть только избранные и под строгим конвоем, была открыта для обыч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Отныне с 9 утра до 5 вечера в JSA любой человек может побывать и свободно походить как по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ак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этого райо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в этом плане пошутили: "Да, можно вздохнуть с облегчением - можно будет теперь приезжать в Пханмунчжом на прогулку в джинсах, шортах и миниюбках".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 сих пор JSA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можно было посещать только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и определенного дресс-кода. При этом т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не было. Теперь можно будет не так заботиться об гардеробе. Но, конечно же, дело не в шортах и миниюбках. На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вернулся мир.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навсегд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адеты посетят Японию и Россию

Кадеты военных академий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ВВС и ВМС РК отправились в совместный морской поход за пределы страны,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с 28 октября по 18 но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598 кадетов. Они на десантных кораблях «Чхонванбон» и «Ильхульбон», а также на борту эсминца «Тэ Чжо Ён» проделают длительный путь,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олегать через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строва Пэн-нэндо, Иодо, Чечжудо и Токто, японский остров Сасебо и российский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жде такие учебные походы проводились только в пределах территории Р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адеты посетят базу седьмого флота ВМС США на Сасебо,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илами самообороны Япон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смотрят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борьбой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посетят командование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МФ Росс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военно-морско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Макарова.

(KBS WORLD)

〈그린 팔라스〉 뿌르까예바 단지 완공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К Грин Палас на Пуркаева

안녕하십니까, 그린팔라스 그룹의 시행사 유한책임회사 '사흐인스트로이'의 대표이사 권운호입니다.

그동안 그린팔라스를 응원해 주신 사할린 주민들의 관심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린팔라스뿌르까예바 단지 완공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린팔라스가 사할린에서 건축 분양을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준비하여 2008년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이미 그린팔라스의 건축역사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랴노바 11A 그린팔라스1을 시작으로 폼프로스펙트 그리고 지금 뿌르까예바까지 저희 그린팔라스는 약 900 세대의 아파트와 약 15000m²의 커머셜(상가, 오피스)을 시장에 공급해왔으며 특히 처음으로 사할린에 지하주차장 건축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뿌르까예바 아파트 단지는 약 4년 5개월간 건축하여 총 5개 동 545세대와 상가 약 9,000m² 및 지하주차장 307개소를 공급하였으며 모든 세대들이 최소 양방향 자연채광, 단지의 많은 부분을 녹색조경 공간으로 이용하고 안전을 위해 단지 내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할린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평판을 받을 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3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뿌르까예바 그린팔라스 옆 부지에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1층은 상가, 2~9층까지는 스튜디오 타입의 평균 60m² 정도의 소형세대 71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중 상층부 3개 층 21세대는 복층형 스튜디오 로프트형 아파트로 사할린 시장에 처음 선을 보이며 특히 젊은 부부가 정이나 소가족단위의 주거형태로 시장 반응이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1월 중순부터 공식 분양을 할 예정이니 서두르셔서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분양 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분양사무실에 복층형 스튜디오 로프트의 표본세대를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 놓았으니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더 많은 프로젝트 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신 고객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품질과 편리함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늘 노력하는 '그린팔라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흐인스트로이” 대표이사 권 운 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ечь Квон Ун Хо,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Сахинстрой»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вон Ун Хо, я являюсь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ООО «Сахинстрой»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Грин Палас.

Очень рад, что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поддержке, сегодня мы смогли благополучно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Грин Палас на ул. Пуркаева.

Грин Палас начал проект доле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еще в 2007 году, а в 2008 приступил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стор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рин Паласа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10 лет.

За это время были возведены комплексы Грин Палас на Емельянова 11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 проспекте №1/Б и возводится большой семей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пр. Мира 300, сдано порядка 900 квартир и 15000 кв.м коммерческой площади(офисы, магазины, кафе и т.д.). Поводом для особой гордости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в Грин Паласе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земная стоянка. Мы стараемся строить так, чтобы это приносило нашим жителям всевозможное удобство.

Комплекс на пр. Мира 300 строился в течение 4 лет 5 месяцев. За это время возведено 5 многоэтажных домов (545 квартир) и 9000 кв. метров коммерческой площади, а также подземная автостоянка на 307 мест. С окон квартир открываются интересные виды города и виды на красоты природы, во дворе используется много естественной подсветки,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ЖК ограничен въезд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у нас есть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наш жилой комплекс счита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амым удоб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3 октября ООО «Сахинстрой»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еще одного жилого здания. На сегодня здания на стадии котлована, 1-ый этаж здания- это торговые площади, со 2-го по 9-ый этаж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71-ой малометражной квартиры (до 60 кв.м) в форме студий. 21 квартира на верхних этажах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по типу двухуровневых студий, планировка таких квартир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предлагаться впервые. Думаем, что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квартиры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молодых супругов или маленькой семьи. В ноябре начнется официальное продажа для желающих приобрести жилье.

Спешите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ы в Грин Паласе на Мира 300.

Для наглядности подготовлена демонстрационная площадь,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а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ая малометражная двухуровневая квартира.

Кроме этого мы планируем много других проек-



тов. Мы будем постоянно 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стать Грин Паласом, который и впредь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у наших клиентов спросом, как компания, которая удовлетворяет запросы в части качества и комфорта!

С уважение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инстрой»
Квон Ун Хо

(3면의 계속)

대법원 1부의 배상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배상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입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수립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대

강경화, '강제징용' 외교부 의견서 철회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

대법 징용판결 나흘 앞두고 외교부 국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이듬해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 하급심 재판부가 잇달아 일본 기업들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는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강경화 장관이 이날 국감에

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부의 견'을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뿐 아니라 2005년 이후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2016년 의견서를 철회할 경우 징용 배상 문제에 대

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공산이 크다.

이 딜레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판결의 향배에 따라 징용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할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 기업들의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럴 경우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느냐, 정부 차원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느냐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서울 연합뉴스, 10월 26일)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Инвалидные коляски для собак и кошек появились в одном из сахалинских приютов

Центр для больных животных «Доброе сердце» получил первые экземпляры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ок для собак и кошек. Это специа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окалеченным друзьям человека передвигаться без посторонней помощи. Средст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есяти колясок собрал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сахалинцы.

Стоимость одной коляски — около 8 тысяч рублей. Заказывают их в Подмосковье. Сейчас задача волонтеров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Доброго сердца» Дмитрия Кузнецова — приучить хвостатых подопечных передвига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передних лапах. Пока еще лохматые питомцы пугаются.

Чтобы собака или кошка не стерла задние лапы, к коляскам прицепили носочки из плотной ткани. Как рассказал Кузнецов, центр сейчас нуждается еще в трех таких колясках. Если добрые сердца помогут, то средством передвижения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все спинальники центра для покалеченных животных.

고용주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할린주 고용인구 및 노동사무소 측은 11월 8일에 고용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주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정해졌다.

참가자들에게 사할린주 정부 부처들과 기관들의 담당자들, 그리고 러시아 내무성 사할린주이민국 직원들의 발표를 소개할 예정이다.

8(4242)43-02-34 유즈노사할린스크 전화로 세미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иглашают на семинар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о том, что 8 ноябр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семинар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Его тема обозначена как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лушателя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клады специалис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Записаться на семинар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4242)43-02-34.

일본 음악가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오케스트라의 합동 음악회 개최

러시아에서 일본의 해를 맞이하여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은 주 중앙도시 행정부의 지원으로 해돋는 나라에서 특별히 초대된 젊고 재능있는 음악가 히다카 시노와 니나가 히로코와 함께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오케스트라가 합동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니나가 히로코의 연주 (바이올린) — 11월 17일, 17:00시, <러시아. 나의 역사> 역사공원(일라리온 트로이츠크 순교자 거리, 1번지, 1관);

히다카 시노의 연주 (그랜드 피아노) — 11월 18일, 17시, <로지나> 문화관 (미라 거리, 83번지).

입장은 무료(좌석 한정되었음)다.

Япо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дадут совместные концерты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рамках Года Японии 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ует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концертов с участием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лашенных из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молодых и талантливых музыкантов Хидака Шино и Нинагава Хироко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Рас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выступление Нинагава Хироко (скрипка) — 17 ноября в 17:00,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улица Священномученика Иллариона Троицкого, 1, корпус 1);

выступление Хидака Шино (фортепиано) — 18 ноября в 17:00, ДК "Родина" (проспект Мира, 83).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с 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홈스크시에 거주하는 문광성·신순자 부부께 드리는 축하문

Примит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этой важной годовщиной — золотой свадьбой!



Прожито много разных дней,
Дней горьких, радостных, счастливых.
И вот настал Ваш юбилей —
Один из самых дней красивых.
И поздравляя вас мы просим:
Годам сдаваться не резон,
Ведь пятьдесят — еще не осень,
А только бархатный сезон.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любимые!
Берегите друг друга!

Любящие Вас дети, невестка, зять и шестеро внуков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